

소치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

바이애슬론 SOCHI 2014



1960년 스쿼벨리(미국)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이애슬론은 소치올림픽 15개의 세부 종목 중 가장 많은 총 11개 금메달이 걸려 있다. 바이애슬론은 두가지(bi) 운동경기(athlon)란 단어의 뜻처럼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한 종목이다.



바이애슬론 스키 (신장 178cm 기준)



한국 선수 경기 일정

2월 13일(목)	2월 14일(금)	2월 17일(월)	2월 18일(화)
PM 11:00 남자 개인 (이인복)	PM 11:00 여자 개인 (문지희)	AM 00:00 남자 집단출발 (이인복)	AM 00:00 여자 집단출발 (문지희)
		합산점수 30위 이내시 출전	

‘눈 위의 사격전’... 동계종목 최다 11개 금 걸려

스키를 타고 총을 쏜다. 특전사 스키 부대가 아니라 ‘눈 위의 사격전’ 바이애슬론 이야기다.

바이애슬론은 많은 눈이 내리는 북유럽 군인들이 이동수단인 스키에 사격술을 추가해 훈련한 것이 그 시발점이다. 18세기 후반 노르웨이와 스웨덴 군인들이 국경에서 펼치던 대결이 스포츠로서 틀을 갖추며 현대의 바이애슬론이 됐다. 1960년 스쿼벨리 올림픽에서 남자 20km 개인경기가 첫선을 보인 바이애슬론은 소치 대회부터 남녀 10개 종목에 혼성 계주가 추가되며 동계올림픽 15개 세부 종목 중 가장 많은 11개 금메달이 걸린 대표종목으로 자리잡았다.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은 소총을 등에 멘 채 스키를 타고 코스를 달리다 구간마다 사격장에서 2~4번(라운드) 사격을 실시한다. 사격자세는 경기방식에 따라 서서 쏘는 입사와 엎드려서 쏘는 복사를 섞어서 실시한다. 라운드마다 50m 거리의 5개 과녁을 맞혀야 하는데 불발 표적 1개당 개인경기는 최종기록에 1분을 더하고 나머지 종목은 150m 추가 주로를 벌칙으로 달려야 한다. 개인경기(남자 20km·여자 15km)는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선수는 4번 사격(복사~입사~복사~입사)을 하

게 된다. 스프린트(남자 10km·여자 7.5km)는 3구간으로 더 짧은 거리를 돌며 사격은 두번(복사~입사)만 한다. 바이애슬론 종목 중 가장 박진감 넘치는 추적(남자 12.5km·여자 10km)은 스프린트 성적 상위 60명이 출전한다. 합산점수 상위 30명이 동시에 출발하는 집단출발(남자 15km·여자 12.5km)은 4차례 사격(복사~복사~입사~입사)을 한다. 4명이 한 팀을 이루는 계주(남자 4x 7.5km·여자 4x 6km)의 주자는 두 번의 사격(복사~입사) 후 교체지역에서 다음 주자와 신체접촉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새로 선보이는 혼성계주(여자 2x 6km+남자 2x 7.5km)는 계주와 같은 룰로 진행된다. 바이애슬론은 전통적으로 노르웨이와 독일이 강세다. 특히 노르웨이의 스포츠 영웅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40)은 이번 대회 남자 스프린트 10k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동계올림픽 통산 최다메달 타이 기록(12개·금7, 은4, 동1)을 세웠다. 한국은 이번 소치에 남부 이인복(30·포천시청)과 여자부 문지희(26·전남체육회)가 출전했다. 이미 스프린트를 마친 두 선수는 각각 82위(이인복·28분35초9), 74위(문지희·24분32초)를 기록했고 개인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홍승한기자



31명중 30위... 그래도 우린 평창까지 달린다

성은령이 11일 러시아 소치 산기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루지 여자 1인승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소치 | AP통신

'비메달권 중독' 값진 도전의 기록

루지 성은령·김동현
바이애슬론 문지희 등
4년 뒤 기약하며 힘찬 발걸음



한국루지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선수 성은령(22·용인대)이 자신의 열매에 희망을 심었다.

성은령은 11일 러시아 소치의 산기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루지 여자 1인승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4초133의 기록으로 31명의 출전 선수 중 30위에 머물렀다. 당초 목표는 무사히 완주하는 것이었다.

고교 시절까지 육상과 태권도를 했던 성은령은 2011년 루지에 뛰듯게 입문한 유망주다. 그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삼파의 전쟁을 벌였다.

무거울수록 빨라지는 루지의 특성 탓이다.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 1kg이라도

늘려야 한다. 세계 정상권에 있는 올레나 슈루모바(우크라이나)의 체중은 87kg이다. 다른 선수들도 대부분 70~80kg 사이다.

성은령도 이들과 비슷한 몸무게를 원했지만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문제였다. 밥을 먹고 또 먹고, 보충제를 물에 타 마셔도 몸무게는 58kg에서 멈췄다. 덕분에 이 종목에서 가장 가벼운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10kg의 남조끼를 입어도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너무 가벼운 그녀다. 성은령의 이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도 성은령은 굴하지 않는다. "한국 루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12일 열리는 3·4차 시기에서 몸무게가 아닌 특유의 코스 적응력과 조정술로

20위권 진입을 노린다. 또 출전팀이 적고 변수가 많은 단체전 팀 계주에서는 동료와 힘을 모아 10위권 진입을 베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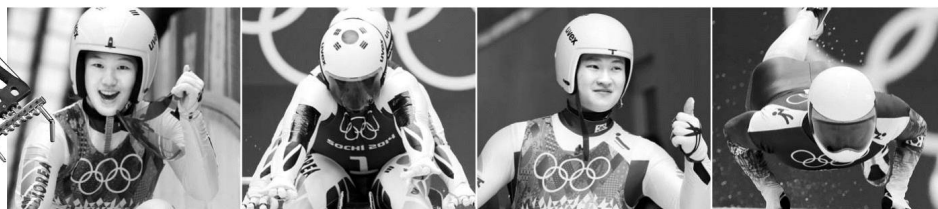
남자 루지 1인승 국가대표 김동현(23·용인대)도 부진한 성적에 굴하지 않고 화망의 노래를 부른다. 성은령처럼 2011년 태권도에서 루지로 전환한 김동현이 지난 10일 첫 올림픽 무대에서 받은 성적표는 39명 중 35위, 4차례 레이스 합계 3분36초385의 기록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펠릭스 로흐(3분27초526)와 비교하면 8초859나 뒤졌지만 1년 만에 3초 이상 기록을 단축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쌓은 자신감이라면 4년 뒤인 평창이 겁나지 않는다.

크로스컨트리의 황준호(21·단국대)도

지난 9일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15km 스키애슬론 경기에서 참가 선수 68명 중 최하위에 그쳤지만 14일 열리는 주종목 15km 클래식에서 이를 악물었다. 세계적 선수들과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평창을 향한 디딤돌을 놓는 게 목표다.

10일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84명 중 74위에 자리한 문지희(26·전남체육회)도 14일 여자 15km 개인 종목에 희망을 불태우고 있다.

주부 크로스컨트리 선수 이채원(33·경기도체육회)은 지난 8일 여자 7.5km+7.5km 스키애슬론 경기에서 44분17초2의 기록으로 61명 중 45위에 그쳤지만 계속 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민국 기자



메달은 멀리 있어도 4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국가대표들이 소치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이애슬론 문지희·여자 루지 성은령·루지 남자 2인승 박찬웅·조정명 조·루지 남자 1인승 김동현·스켈레톤 이현식(왼쪽부터). 소치 | 로이터·AP통신